

지친 여름 삼겹살로 체력 충전...유통가, 돼지고기 할인

이마트 광주점, 7월7일까지 '삼겹살 혁명' 행사...오픈런 나선 소비자들 롯데마트, 26일까지 브랜드 특가...홈플러스, AI 가격혁명 행사 진행

“요즘 가족끼리 돼지고기 먹으러 가면 8만원 이상은 생각해야 하는데,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할인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겠네요.”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금(金)겹살’로 불리는 가운데, 지역 대형마트들은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대형마트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부위의 돼지고기를 기존보다 30~40% 싼 값에 제공하면서 지역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방문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이마트 광주점 1층 축산 코너 내 삼겹살 할인 행사 매대 앞은 평일 오전이지만 젊은 부부, 가정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을 볼 수 있었다.

돼지고기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할인행사 소식을 들은 지역민이 매장 오픈과 동시에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주부들이 돼지고기를 싼 값에 구매하기 위해 여러 팩을 쇼핑카트에 담았다가, 행사 기간 중 1인 2팩 한정 판매라는 직원의 안내를 듣고 제자리에 물러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최준우(34)씨는 “어제 저녁부터 행사 소식을 들은 아내가 아침 일찍 가서 삼겹살 여러개 집어오라고 뒤달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오픈런을 하게 됐는데, 인원 당 한정판매인 줄은 몰랐다”고 웃었다. 저렴한 돼지고기 가격에 행사 기간 중 연달아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주부들도 눈에 띄었다.

김희선(여·37)씨는 “아이들이 고기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하는데, 외식비 부담이 커져서 걱정이었다”며 “지난주 행사가 시작되고 오늘로 3번째 방문하고 있는데, 고기류 할인 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4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이마트 광주점 1층 축산코너에서 고객들이 삼겹살 할인 품목들을 살펴보고 있다.

지역 대형마트들은 본격적인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높은 돼지고기 가격에 이른 피서를 떠나는 ‘6월 피서족’과 방향을 맞춘 대학생, 가정주부 등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 광주점은 오는 7월 7일까지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삼겹살 혁명’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오는 30일까지는 ‘1인 2팩’ 한정으로 ‘국내산 냉장 삼겹살·목심(100g)’을 기

존보다 1000원(34.7%) 할인된 188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는 ‘브랜드 삼겹살·앞다리(100g)’을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40% 할인하고, 7일까지는 ‘스페인 냉동삼겹살(1kg)’을 8800원 특가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26일까지 ‘브랜드 돼지고기 특가’ 행사를 열고, ‘브랜드 앞다리·갈비살’을 2190원에, ‘브랜드 뒷다리살’은 1290원 등 지난주 대비 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홈플러스 역시 오는 26일까지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고물가 품목을 할인판매하는 ‘AI 가격혁명’ 행사를 통해 ‘숯불양념목심구이(800g)’를 업계 최저가에 제공한다.

또 ‘보덕대 삼겹살·목심(100g)’은 행사카드로 결제시 40% 할인하는 등 다양한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 유통정보에 따르면 광주지역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 23일 기준 100g 당 2553원으로, 전월 동기(2301원) 대비 10.9% 올랐고, 지속 상승하고 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전주영화제... ‘잘 키운’ 지역축제 지역경제 살린다

올 2분기 호남권 경기 숙박·음식점업 개선 등 영향 소폭 증가

올해 2/4분기 호남권 경기가 지역 축제에 힘입어 지난 1/4분기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과 자동차, 부동산업 등이 개선된 반면 도소매업, 반도체 등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전북본부 및 목포본부가 지역내 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 2/4분기 중 호남권 경기는 1/4분기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생산이 조선과 자동차의 양호한 업황을 바탕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서비스업 생산도 부

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높은 외식물가에도 불구하고 순천만 국가정원 재개장, 전주국제영화제 및 대규모 지역축제 개최 등의 영향으로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 순천만국가정원은 6개월여 간의 정비를 마치고 지난 4월 1일 재개장에 4월 한 달간 약 1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이 외에도 2/4분기 중 전주국제영화제, 담양 대나무축제, 곡성 세계장미축제 등 지역축제가 개최됐다. 이 같은 축

제로 인해 월평균 호남권 방문자 수도 지난 4-5월 중 2457만명으로, 1/4분기(2422만명) 대비 1.5%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서비스 소비 증가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건설투자 및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4-5월 중 월평균 취업자수는 건설업 취업자가 5000명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1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4-5월 중 월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하락세가 둔화되고, 주택매매가격은 상승 전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조달청, 7월부터 혁신 제품 구매 규제 완화

혁신제품 제도 전면 개편

시범구매 통해 기업 매출 기여도

조달청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기술 우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높은 기술력이 인정되는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도 조달청 혁신제품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한편 신속하고 전략적인 시범구매를 통해 기업들의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24일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정에 따라 우선 현장 수요 기반의 기술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게 된다. 또 혁신제품에 대한 전략적 시범구매에 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공공서비스 개선, 신성장·신산업 육성 및 수출 증대 효과 등을 감안해 시범구매

우선순위에 선정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 밀접하거나 긴급한 수요와 관련된 혁신제품은 시범구매 절차를 단순화하고, 해외수출 제품은 매칭 시 핏수 제한을 예외로 두어 해외 시범구매를 우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또 복잡한 규격 추가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구매요구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한 번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향후 중복해서 평가받지 않도록 심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도입된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현재까지 1893개 혁신제품이 지정되고 지난해 8157억원의 공공구매가 이뤄져 그간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규정개정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의 연선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과감한 규제개혁과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애그테크 기업 성장 지원 첫 도입...참여기업 모집

다음달 7일까지 10개 사 최대 1500만원 자금 지원

전남도가 7월 7일까지 애그테크(AgTech)분야의 기업 성장과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애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을 농작물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전남도는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영농과 유통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농기구에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관련 산업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애그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올해 선정 규모는 10개사 내외다. 선정기업에게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연계 기업 설명(IR) 피칭 및 컨설팅, 투자 연계 지원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애그테크(AgTech)분야 7년 미만 기업으로, 분사 또는 지점, 공장 중 1개 사항이 도내에 소재해야 한다. 분야는 ▲스마트팜·식물공장 ▲친환경 농자재 ▲기능성 식품 가공 ▲곤충 산업 ▲스마트팜 전문 A/S 기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남도 누리집 및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업은 서류심사, 발표평가, 부트캠프

운영을 통해 7월 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애그테크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올해 초 미국에서 열린 ‘CES 2024’에서 다수의 관련 기업들이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64.73 (-19.53)
↓ 코스닥	841.52 (-11.15)
↑ 금리(국고채 3년)	3.194 (+0.018)
↑ 환율(USD)	1389.00 (+0.70)

소비자원 “5월 헬스장·세탁 서비스 상담 최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에 헬스장과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이 몰렸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4만3584건으로 전달보다 4.1% 증가했다.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2.5% 늘어난 것이다. 품목별 상담 건수는 헬스장이 1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서비스

(912건), 이동전화서비스(831건), 각종 건강식품 등 순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나 환불 거부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세탁서비스는 세탁의뢰 후 제품이 손상된 데 대한 보상 요구 관련 상담이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는 업체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 미흡과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